

사회



7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낮 시간인데도 덤프트럭·화물차·탑차 등 대형차들이 도로 갓길을 점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덤프트럭·관광버스·굴삭기·지게차... 100m 줄지어 불법주차

대형차 도심 골목길까지 점령

사고 많고 범죄 우려... 강력 단속 시급

7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2순환도로 진입로 인근 안전지대. 1652㎡ 넓이의 안전지대에는 높이 80cm·지름 8cm 크기의 빨간색 차량 규제봉이 1.5m 간격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모두 620개.

이날 지난달 4일 북구청이 대형차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이다.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대형차 주차장과 다름없었다.

같은 시간 제2순환도로 진입로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두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양쪽 갓길에 덤프트럭과 관광버스, 굴삭기, 지게차 등 대형차 30여대가 100m가량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 때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 소리에 깜짝 놀란 행인 2명이 운전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검은 매연도 뿜어져 나왔다. 대형차들이 인근 순환도로 진입로에 북구청이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주차를 못 하게 되자 도심 주택가로 파고든 것이다.

주민 김모(42·북구 두암동)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형차들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집앞 도로가 큰 차들의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형차의 밤샘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 방해에 따른 교통사고는 물론,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북구 문흥동 대주아파트 앞 이면도로. 왕복 4차선의 이

도로에는 대낮인데도 화물차·지게차·관광버스 20여 대가 갓길에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갓길에 버려진 음식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도로 바닥 표면은 화물차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때로 범벅이 돼 있었다. 심지어 현장에서 15㎖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고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또 대주아파트 진출입로 앞에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운전자와 이면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승강기가 자주 벌어졌다. 운전자들의 시야가 대형차에 가려진 탓에 서로 부딪힐 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이다.

주민 이모(33·북구 문흥동)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일주일에 평균 2~3건 가량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다"며 "밤만 되면 대형차들이 골목길까지 점령하는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인력 부족 등이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대형차의 불법 주차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단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한 두 명밖에 없는 데다, 단속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대형차의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30일 현재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단속건수는 ▲동구 25건 ▲서구 120건 ▲남구 10건 ▲북구 260건 ▲광산구 145건 등 모두 560건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국감 앞두고 간부가 광주서 만취 사고

경찰 음주운전 심각

광주·전남 21명 적발

경찰청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지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광주·전남 경찰의 음주운전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남부경찰은 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49)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6일 새벽 5시5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고가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 앞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A경위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날 경찰청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광주·전남 경찰의 음주운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21명에 이른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7명 ▲경장 3명 ▲순경 2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전남경찰청은 14명이 적발됐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전남 경찰관들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모두 45건에 이른다.

이는 서울경찰청(113건), 경기경찰청(97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경찰관 수를 감안하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도 지난 2007년 개칭 이후 경찰관 8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37) 김종두



허위 사이버 학습 수단 420만원 쟁건 교감 적발

목포경찰

목포경찰청은 7일 동료 교사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 학습수당 수백만원을 쟁건 혐의(사기 등)로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 윤모(61)씨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교감은 지난달 9월부터 1년여 동안 사이버 가정교사를 신청하지 않은 동료 교사 13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작해 14회에 걸쳐 42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위사실이 드러난 윤 교감은 최근 대기발령 됐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생이 인터넷을 활용,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관리 방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헤어진 내연남 차 번호판 뜯어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차량에 흠집을 내고 번호판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서 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52)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노모(46)씨의 승용차 보닛을 자신의 열쇠로 긁어 흠집을 내고, 차량의 뒷 번호판을 뜯어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결별한 노씨와 다른 여성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수년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준 노씨가 헤어지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충장축제 혼잡 틈타 성추행·절도 잇따라

제7회 광주 충장축제 2일째인 지난 6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YMCA 앞길에서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공연을 관람하던 광주 모 고교 2년 A(16)양을 성추행한 뒤 달아났다.

범인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몰린 틈을 타 A양의 치마 속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은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20대 초중반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날 축제 부스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을 훔친 이모(45·순천시 풍덕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7범인 이씨는 6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3가에 설치된 특산물 판매점에서 송모(5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의 현금 54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여수서 5만원권 위폐 발견

20대 후반 남성 새벽에 택시비로 사용

여수에서 택시비로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6일 새벽 여수시 봉산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 박모(47)가 가스 충전 후 5만원권 지폐로 계산했으나 충전소 직원이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위조지폐는 20대 후반 한 남성이 이날 새벽 0시께 봉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오림동 이마트앞까지 가면서 택시비로 내고 거스름돈을 쟁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이날 같은 수법으로 새벽

시간 택시를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총 5장의 5만원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위조지폐는 A4용지에 스캔한 것으로 조잡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알려왔습니다

※본보 10월 7일자 6면 '전·현 여수시의회 6명 '오현섭 뇌물' 추가 확인' 제하 기사에서 오모(여·47)씨는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돈을 갖고 튀어라”

건어물 결제대금 4억7천만원 '눈독' 40대 동승 후배 화장실 간 사이 차 몰고 달아나

후배가 운반하는 거액의 현금에 눈독을 들인 40대가 돈이 실린 승용차를 운전하고 달아난 지 3시간 만에 붙잡혔다.

7일 장성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백양사 휴게소에서 박모(47)씨는 후배인 목포 소재 건어물회사 직원 김모(44)씨가 현금 4억7000만원을 싣고 서울로 향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날 김씨는 서울의 거래처에 결

재할 4억7000만원의 거액을 혼자 운반하는데 부담을 느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박씨를 동승시켰다. 그러나 선배를 믿은 게 실수였다.

서울로 향하던 중 백양사 휴게소에 잠시 들러 김씨가 화장실에 가자 박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백양사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고 다시 광주방면으로 45km를 도주한 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과 재빨리 공조수사를 펼친 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 직원들은 박씨의 누나 집이 관할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순찰하던 중 송정역에서 송정1교 방향으로 향하던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경찰은 1km 가량을 뒤쫓다 용의 차량보다 앞서 가던 광산구청 소속 대형 청소차량을 발견, 멈출 것을 요청한 뒤 청소 차량에 막혀 멈춘 용의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박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현금을 모두 5만원권으로, 4억7000만원이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으나 승용차 트렁크에서는 2000만원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향하던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경찰은 또 4억7000만원의 현금을 직접 운반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